

<2021. 04. 17. 시행 국가직 9급 공무원 문항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	5			
고대	1, 6			9
중세	10		14	2
근세	3, 4			
근대대동기		15		
근대개항기	13, 20	19		
일제강점기	12, 17, 18			
현대	16	11		
통합형		7		8

< 총 평 >

2021년 국가직 9급 한국사는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다. 문제 유형으로는 **자료제시형이 16문제(원문사료 8문제, 응용자료제시 8문제)** 출제되었다. 단순문답형은 4문제 출제되었고, **순서나열형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시대사로는 전근대사에서 12문제, 근현대사에서 8문제 출제되었다. 전근대사에서는 선사시대가 1문제, 고대사가 3문제, 중세사에서 3문제, 근세사에서 2문제, 근대대동기에서 1문제, 통합형 2문제 출제되었다. 근현대사에서는 근대 3문제, 일제 3문제, 현대 2문제가 출제되었다.

분류사로는 정치사에서 12문제, 경제사에서 4문제, 사회사에서 1문제, 문화사에서 3문제 출제되었다. 경제사에서는 전통적인 출제 주제인 토지제도, 조세제도에서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들이 출제되었다.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는 발해의 역대 수도들이 표지된 지도를 주고 각 수도에 존재하는 유적에 대해 묻는 9번 문제, 국민대표 회의 선언문이라는 비교적 낯선 자료를 제시한 17번 문제, 개항기 경제라는 비교적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를 다룬 19번 문제 등이 있었다.

<출제 문항 유형 분석>



< 출제 문항 주제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단위	출제 주제	난이도
1	고대 정치	고구려 유리왕	중하
2	중세 문화	안향	중
3	근세 정치	세조	중하
4	근세 정치	조광조	중하
5	선사	신석기 시대의 유적·유물	하
6	고대 정치	신라의 발전 과정	중하
7	통합형	시기별 대외 교류	중
8	통합형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중
9	고대 문화	발해 수도별 유적	상
10	중세 정치	고려 성종	중하
11	현대 경제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	중
12	일제 정치	민족 말살 정책	중
13	근대 정치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중
14	중세 사회	고려 시대의 향리	중
15	근대기 경제	이양법	중
16	현대 정치	유신 체제 시기의 사실	중
17	일제 정치	국민 대표 회의	중상
18	일제 정치	토지 조사 사업	중
19	근대 경제	개항기 무역	중상
20	근대 정치	홍선대원군	하

< 최고 난이도 문항 >

문항 번호	출제 주제	특징
9	발해 수도별 유적	한능검이나 수능형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의 지도 문제로, 발해의 수도를 과거 명칭이 아니라 현재 중국 지명을 제시하여 더욱 난이도를 높였다. 또한 정효공주 무덤, 정혜공주 무덤의 위치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오봉루 성문터라는 낯선 용어를 제시하여 변별력을 높였다.

< 변별력 있는 문항 >

문항 번호	출제 주제	특징
17	국민 대표 회의	국민 대표 회의 선언서라는 낯선 자료를 제시하여 변별력을 높였다. 사료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정답 선지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
19	개항기 무역	개항기 무역이라는 비교적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개항기 때 청나라 수입액이 일본을 앞지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정답 선지를 고를 수 있었으며, 개정 조·일 통상 장정에 방곡령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선지가 제시되어 변별력을 높였다.

정답

1. ③	2. ②	3. ③	4. ①	5. ①
6. ④	7. ④	8. ③	9. ③	10. ①
11. ④	12. ③	13. ②	14. ④	15. ②
16. ①	17. ④	18. ②	19. ②	20. ③

1. 고구려 유리왕	정답 : ③
<p>제시된 자료는 고구려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의 내용으로, 유리왕이 사모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며 지은 4언시이다. ③ 고구려 유리왕 때 수도를 졸본 지방에서 압록강 근처의 국내성으로 옮겼다.</p> <p>오답분석 : ① 고국천왕 때의 일이다. ②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④ 소수림왕 때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삼국의 성립과 체제 정비, 71쪽 / 고구려의 발전, 77쪽 / 회화글씨-문학음악, 170쪽) (2021년 필기노트, 초기 고구려, 14쪽)</p>	

2. 안향	정답 : ②
<p>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유학자’는 고려 시대의 유학자인 안향을 일컫는다. 조선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은 안향의 고향에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여 안향을 추모하였다. ② 원 간섭기인 충렬왕 때 안향은 원나라에서 ‘주자전서’를 필사하여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p> <p>오답분석 : ① 해주향약을 만들어 보급한 사람은 조선 시대의 유학자인 이이다. ③ ‘성학십도’는 조선 시대의 유학자인 이황이 저술하였다. ④ ‘해동제국기’는 조선 전기, 신숙주가 저술한 건문록이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유학의 발달, 281쪽 / 향약과 유교 윤리의 보급, 389쪽 / 지도·지리서의 편찬, 409쪽 / 성리학의 융성, 426쪽) (2021년 필기노트, 고려 유학의 발달, 97쪽)</p>	

3. 세조	정답 : ③
<p>탑골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 세조 때 건립된 것으로, 밑줄 친 ‘왕’은 조선 세조를 일컫는다. ③ 세조 때 왕권 강화를 위해 의정부 서사체를 폐지하고, 6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였다.</p> <p>오답분석 : ① ‘동국병감’은 조선 문종 때 김종서의 주도 아래 편찬된 병서이다. ② 조선 성종 때의 일이다. ④ 조선 태종 때 한양으로 재건되었으며, 경복궁 동쪽에 이궁(離宮)인 창덕궁을 새로 건설하였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정비, 317-321쪽 / 인쇄술의 발달과 병서 편찬, 414쪽 / 건축, 415쪽) (2021년 필기노트, 조선 전기 주요 국왕의 업적, 48쪽)</p>	

4. 조광조	정답 : ①
<p>제시된 자료는 조광조가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 인물은 조광조이다. ① 조광조는 기묘사화 때 제거되었다.</p> <p>오답분석 : ②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사람은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다. ③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한 사람들은 윤원형을 비롯한 소문 세력들이다. ④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를 폐비하는데 동조한 사람들은 일부 척신·훈구 세력들로, 조광조와는 관련 없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사림의 정치적 성장과 사화, 338~339쪽) (2021년 필기노트, 조광조의 개혁 정치, 50쪽)</p>	

5. 신석기 시대의 유적·유물	정답 : ①
<p>㉠ 양양 오산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로서, 덧무늬 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 서울 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로서, 빗살무늬 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p> <p>오답분석 : ㉢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이고,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 부산 동삼동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맞지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구석기 문화, 26쪽 / 신석기 문화, 27쪽 / 청동기의 보급과 생활, 31~32쪽) (2021년 필기노트, 선사 시대 주요 유적지, 11쪽)</p>	

6. 신라의 발전 과정	정답 : ④
<p>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된 백제가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것은 백제 문주왕 때인 475년의 일이고, 백제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긴 것은 백제 성왕 때인 538년의 일이다. ④ 법흥왕 때인 527년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p> <p>오답분석 : ① 대가야를 정복한 것은 진흥왕 때인 562년의 일이다. ② 대가야를 정복한 이후, 진흥왕은 568년 함흥평야를 정복하고 황초령 순수비를 세웠다. ③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것은 진흥왕 때인 545년의 일이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백제의 발전 과정, 81~82쪽 / 신라의 발전 과정, 84~85쪽) (2021년 필기노트, 신라의 발전, 21쪽)</p>	

7. 시기별 대외 교류	정답 : ④
<p>④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와의 대외 교류에 대한 설명이다.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p> <p>오답분석 : ① 6세기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②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③ 고려 시대,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산업 정책과 대외 무역, 128쪽 / 일본과의 문화 교류, 174쪽 / 무역 활동, 245쪽 / 대외 무역의 발달, 475쪽) (2021년 필기노트, 조선 후기의 대외 무역, 82쪽)</p>	

8. 우리나라 세계 유산, 세계 기록 유산	정답 : ③
<p>㉠ 공주 송산리 고분군 중에서 전축분(=벽돌무덤)은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이다. ㉡ 양산 통도사는 삼보 사찰(통도사·해인사·송광사)로 각각 불·법·승을 상징하는 불교 건축물이 존재함) 중 하나로, 금강계단 불사리 탑(부처의 사리 보관)이 있어 불보 사찰의 칭호를 얻었다. ㉢ 병자호란 때, 청 군대의 빠른 남진으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인조과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다.</p> <p>오답분석 : ㉡ ‘국조보감’에 대한 설명이다.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의 주서(注書)가 왕과 신하 간에 오고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한 것이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고분, 163쪽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352쪽 / 역사서와 통치 기록, 407쪽) (2021년 필기노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유산 총정리, 119쪽)</p>	

9. 발해 각 수도별 유적	정답 : ③
<p>제시된 지도의 ㉠돈화는 길림성 돈화시 동모산이고, ㉡화룡은 중경 현덕부, ㉢염안은 상경 용천부, ㉣훈춘은 동경 용원부이다. ㉤용두산 고분군은 중국 길림성 화룡면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적절하다. ㉥ 당나라 장안을 본 떠 만든 상경성의 궁성 정문터인 오봉루 성문터는 상경 용천부에서 발견되었다.</p> <p>오답분석 : ㉠ 정효공주 무덤은 길림성 화룡면 용두산 고분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적절하다. ㉢ 정혜공주 무덤은 길림성 돈화현 옥정산 고분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적절하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발해의 건국과 발전, 102쪽 / 고분, 164쪽 / 건축과 탑, 166쪽) (2021년 필기노트, 발해의 건국과 발전, 24-25쪽/ 고대의 고분, 111쪽)</p>	

10. 고려 성종	정답 : ①
<p>제시된 자료는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의 내용이다. ① 성종 때 개경, 서경, 12목에 물가 조절 기관인 상평창을 설치하였다.</p> <p>오답분석 : ② 고려 광종 때 균여를 귀법사의 주지로 삼았다. ③ 고려 예종 때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인 7재를 설치하였다. ④ 고려 문종 때 경정 전시과를 실시하였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성종, 195쪽 / 고려 중기의 정치 상황, 206쪽-207쪽 / 불교의 발전, 273쪽) (2021년 필기노트, 고려 전기 왕들의 업적, 31-32쪽)</p>	

11.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	정답 : ④
<p>④ 장면 내각은 이승만 정권에서 작성된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안을 바탕으로 새롭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 시행되지 못하고, 박정희 군정 때인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p> <p>오답분석 : ① 이승만 정부 때인 1948년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한국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경제 안정을 위한 미국의 경제 원조를 위해 체결되었다. ② 이승만 정부 때 실시된 농지 개혁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③ 이승만 정부 때인 1950년대 원조 물자에 토대를 둔 삼백 산업(제분·제당·면방직 산업)이 발달하였다.</p> <p>(2021년 해법국사 2권, 장면 내각, 843쪽 / 광복 이후의 경제적 상황과 6.25 전쟁 전후 복구, 888~889쪽 /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 889~890쪽) (2021년 필기노트, 현대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186-187쪽)</p>	

12. 민족 말살 정책	정답 : ③
<p>중·일 전쟁은 1937년에 발발하였다. ③ 남면북양 정책은 1931년 만주 사변 이후부터 추진된 정책이다. 일제는 한반도 남부에 면화 재배를, 북부에는 양 사육을 강요하여 공업 원료를 수탈하고자 하였다.</p> <p>오답분석 : ①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일제는 일왕이 있는 일본 궁성을 향해 절을 하는 궁성 요배를 강요하였다. ② 일제는 1937년에 황국 신민 서사를 만들어, 다음해부터 일본어로 의무도록 하였다. ④ 일제는 1941년 국민학교령을 제정하여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p> <p>(2021년 해법국사 2권,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정책, 709쪽 / 1930년대 이후 일제의 경제 수탈, 711쪽) (2021년 필기노트, 민족 말살 통치, 149쪽)</p>	

13.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정답 : ②
<p>밀줄 친 ‘조약’은 1882년에 미국과 체결한 조·미 수호 통상을 일컫는다. ②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임오군란 발발 이전인 1882년 4월에 체결된 조약이다.</p> <p>오답분석 : 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영사 재판에 의한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③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최혜국 대우 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조약이다. ④ ‘조선책략’의 유포로 연미론이 확산되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는데 영향을 미쳤다.</p> <p>(2021년 해법국사 2권,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 580~581쪽) (2021년 필기노트, 1870~1880년대 조약 체결, 124쪽)</p>	

14. 고려 시대의 향리	정답 : ④
<p>㉠ 고려 태조 때 사십관 제도를 실시하여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 상층 향리는 과거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중앙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 고려 태조 때부터 기인제도를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져 그 지방 행정에 관해 자문하였다. ㉣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의 경우, 향리가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태조, 191쪽 / 통치 조직의 정비, 200쪽) (2021년 필기노트, 고려의 신분 제도, 44쪽)</p>	

15. 이양법	정답 : ②
<p>제시된 자료의 밀줄 친 ‘이 농법’은 이양법을 일컫는다. ①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은 실제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비법, 이양법(모내기법) 등의 농법을 소개하였다. ③ 이양법은 직파법보다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었다.</p> <p>오답분석 : ㉡ 견종법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 후기에 밭고랑에 곡식을 심는 이른바 견종법이 보급되었다. ㉢ 이양법은 수령철사의 항목에 없는 내용이다. 수령철사의 내용은 농상성(農桑盛,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戶口增, 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군정을 바르게 함)·부역균(賦役均, 부역을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소송을 간명하게 함)·간활식(奸猾息,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이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지방의 행정 조직, 328쪽 / 천문역법의학농서, 413쪽 / 농민 경제의 변화, 477쪽) (2021년 필기노트, 필기노트, 조선 후기의 농업, 83쪽)</p>	

16. 유신 체제	정답 : ①
<p>제시된 자료는 1972년에 제정된 유신헌법(7차 개헌)의 내용으로, 유신헌법은 1972년 11월부터 1980년 10월 8차 개헌 전까지 적용되었다. ① 1979년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p> <p>오답분석 : ② 1968년의 일이다. ③ 유신헌법 제정 직전인 1972년 7월의 일이다. ④ 6·3 시위가 발발한 것은 1964년의 일이다.</p> <p>(2021년 해법국사 2권, 박정희 정권, 849쪽 / 유신 체제의 성립과 붕괴, 852~854쪽) (2021년 필기노트, 유신 체제, 179쪽)</p>	

17. 국민 대표 회의	정답 : ④
<p>제시된 자료는 국민 대표 회의 선언문으로, 밑줄 친 ‘회의’는 1923년에 개최된 국민 대표 회의를 일컫는다. ④ 국민 대표 회의에서는 현 임시 정부를 해산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는 창조 과와, 현재의 임시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존속시키자는 개조과로 양분되어 대립하였다.</p> <p>오답분석 : 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발표된 것은 국민 대표 회의 개최 이후인 1941년의 일이다. ② 국민 대표 회의 개최 이후인 1925년의 일이다. ③ 국민 대표 회의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1935년 지청천의 조선 혁명당, 조소앙의 한국 독립당은 민족 혁명당 창당에 참여하였다.</p> <p>(2021년 해법국사 2권, 임시 정부의 시련과 재정비, 730~731쪽 /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 756쪽) (2021년 필기노트, 대한민국 임시 정부, 153-154쪽)</p>	

18. 토지 조사 사업	정답 : ②
<p>제시된 자료는 1912년에 제정된 토지 조사령의 내용으로, 이 법령에 따라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이 추진되었다. ② 토지 조사 사업에 따라 공장토(대한제국 황실 소유지), 역둔토(관유지) 등 특정 소유자가 없는 토지는 신고주가 없어 국유지의 명목으로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p> <p>오답분석 : ① 토지 조사 사업의 주무 기관은 토지 조사국이다. 농상공부는 2차 갑오개혁 때 만들어졌으며, 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존속한 관서이다. ③ 동양척식 주식 회사의 설립은 1908년의 일로, 토지 조사 사업 실시 이전이다. ④ 농촌 진흥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p> <p>(2021년 해법국사 2권,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수탈, 704쪽) (2021년 필기노트, 1910년대 경제 수탈, 148쪽)</p>	

19. 개항기 무역	정답 : ②
<p>② 조·청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에서의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맞지만, 수입액이 일본을 앞지른 적은 없었다.</p> <p>오답분석 : ① 개항 직후인 1870년대, 외국 상인의 활동 범위가 개항장에서 10리 이내로 제한(거류지 무역)되었기 때문에, 객주 등 조선 상인을 매개로 중개 무역을 하였다. ③ 일본 상인들은 주로 영국에서 수입한 면제품을 조선에 팔고, 쇠가죽·쌀·콩 등을 싼값에 구입하였다. ④ 조선은 1883년 일본과 조·일 통상 장정을 개정하여 곡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방곡령)을 추가하였다.</p> <p>(2021년 해법국사 2권, 외국 상인의 침투와 무역의 확대, 659~660쪽 / 상권과 이권 수호 운동, 665쪽) (2021년 필기노트, 개항과 외국 상인의 침투, 140쪽)</p>	

20. 흥선 대원군	정답 : ③
<p>밑줄 친 ‘그’는 흥선대원군이다. ③ 임오군란 때 제집권한 흥선대원군은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영을 복구하였다.</p> <p>오답분석 : ① 속중 때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 충북 괴산에 만동묘를 세워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제사지냈다. 흥선대원군 때에는 오히려 노론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만동묘를 폐지하였다. ② 군국기무처의 총재를 역임한 인물은 김홍집이다. ④ ‘만기요람’은 순조 때 서영보·심상규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재정과 군정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p> <p>(2021년 해법국사 1권, 세도 정치의 전개, 453쪽 / 성리학의 절대화 경향, 513쪽) (2021년 해법국사 2권,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 571쪽 / 임오군란, 592쪽 / 제1차 갑오개혁, 611쪽) (2021년 필기노트,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책, 122-123쪽 / 임오군란, 128쪽)</p>	